

수유형태와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들의 태도 연구

변수자* · 한경자** · 이자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여성이 생의 주기를 통해 성장 발달하여 어머니가 되면, 인간의 자연적 생리적인 현상인 출산과 수유의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어머니의 출산과 수유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영·유아는 생존과 더불어 정상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그것은 미래의 건강한 삶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모유수유는 태초부터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능(능력)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심리적이며 생리적인 사건의 하나로 주시되어 왔으며(김신정, 1993) 또한 모유의 성분은 인간이 아직까지 그 어떤 것으로도 똑같이 복제할 수 없는 성분인 최상의 것을 인간 가운데 여성인 어머니가 선물로 받고 있는 것이다(김혜숙, 1994). 그러므로 모유는 생후 초기부터 영아에게 있어서 그 어떤 다른 영양법으로도 모방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식품으로서 신비에 가까운 정도로 모아 양측에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적 측면으로도 충족 효과와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의 건강과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중요성이 있다는 증거를 선행 연구자들은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기의 양육은 반드시 모유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일치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유아의 수유에 관한 통계조사 및 자료는 상당수 나와 있으나 그 조사 대상과 방법이 서로 달라 비교가 어렵지만 대체적 추세로는 전국적으로 1970년을 기점으로 하여 모유수유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위험 수준에 이르르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농촌보다는 도시 지역에서,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또한 직업을 가진 여성에게서 더욱 저조한 모유수유율을 나타내고 있어서(이 근, 1992; 주진순, 1982; 한경자, 1992; 송규희, 1989 등) 이러한 경향은 모유수유 실천에 영향을 미칠 중요변인으로 작용할 어머니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염려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보건 의료요원들에게는 늘 주시되어야 하고 중요시 해야 할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 이러한 실태를 우려하고 있는 많은 의료전문가들은 대중매체나 책자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모유수유를 해야 할 대상자들을 위해 병원에서의 수유 전문가의 교육 및 훈련을 활발히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이에 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모유수유 실천에 관한 실태 조사나 모유수유의 실패요인 및 지식 그리고 모유수유의 장점 및 잇점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있다. 그러나 모유수유의 실천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직접 행동으로 옮겨야 할 어머니의

* 국립의료원 간호전문대학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태도 즉 모유수유를 하려는 어머니의 의지 및 신념을 나타내는 태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서울 지역에 있는 영·유아를 가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해 비호의적이고 부정적인 지적, 감정적 그리고 행동의 경향성을 관찰할 수 있는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인공수유형태를 선호하거나 선택하는 개인 나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함이며 이미 형성된 모유수유에 대한 비호의적인 태도를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그리고 간호 실무와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모유수유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의 변화는 모유수유 실천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간호협회의 모유 먹이기 운동 후 어머니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여 모유수유율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며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수유형태는 어떠한가?

둘째, 모유수유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셋째,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점수는 어머니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네째,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점수는 아기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수유형태와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서로 상호작용 효과가 있으며 모유수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수유형태 : 아기를 양육하기 위하여 선택된 영양 공급원이 모유이었던가(모유수유), 우유이었던가(인공수유), 모유와 우유를 혼합한 영양(혼합수유)이었던가를 분류한 3종류 형태를 의미한다.
- 2) 모유수유 : 수유형태 가운데 영·유아에게 1개월 이상 모유로만 영양을 공급한 경우를 의미한다.
- 3)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 어머니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수유함에 있어서 모유영양에 대해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경향으로 구성된 질문에 응답한 점

수로서 모유수유 행위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지를 평가하는 개인의 태도경향을 의미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지역에 있는 병원 및 보건소에 서 무작위 추출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전국대상자에게 일반화 시킬 수 없다.

II. 문헌고찰

1. 모유수유와 수유형태

우리나라의 과거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은 모유를 대신할 식품이 달리 없었기 때문에 영아의 생존을 위해서 모유수유를 했으며 영아에게 대체식품을 먹인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었다. 또한 출산 후에는 대가족 속에서 자신의 모유수유를 받고 자란 많은 여성들의 지지 조직속에 둘러싸여 모유수유 방법을 자손대대로 전수 받았고(조미영, 1991) 대가족 속에서 출생시부터 어머니와 아기는 함께 있으면서 당연히 젖을 아기에게 먹임으로써 모유에 대한 영아의 욕구도 쉽게 충족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문화에서의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수유형태와 태도는 윗어른의 엄격한 지도와 감독 아래서 대부분의 산모가 모유수유를 직접했으며 아기를 위해 어머니의 모유수유가 대단히 강조되었음을 문헌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유안진, 1990).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보편적 어머니상은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어머니로서 수행해야 할 모유수유의 의무를 매우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와 아기간에는 보다 호의적인 상호존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속되어 오랜 세월 동안 모유는 자연스럽게 선택되어 아기에게 모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충족시켜 왔으나, 산업혁명이란 사회적 변화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소득이 향상되고 의학기술의 발달 및 식품가공법이 발달되면서 모유를 우유로 대체하려는 인공영양이 성행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모유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와 더불어 쉽고 편안한 것 만을 추구하려는 개인주의적 경향이 자식에 대한 어머니들의 사고에까지 변화를 초래하는 의식구조의 문제로까지 이르게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인공영양은 고대부터 시도는 되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증거가 이집트의 부식동판과 그리스 신화를 통해 증명되었으며 1600년대에는 빵죽이 아기들의 음식으로 처음 사용되어졌다고 한다(Riodan, 1980). 우리나라에서도 중상류 가정에서 산모는 초유를 신생아에게 먹이지 않고 감초달인 물이나, 경면주사, 또는 미나리 생즙이나 쌀을 끓인 미음과 설탕물이나 꿀물, 그리고 인삼달인 물을 모유 대신 신생아에게 주거나 젖 아기 가진 부인을 불러서 산모 대신 수유를 부탁하던 관습이 있었다.

이와 같은 관습에 관하여 70세 이상의 부인 10여명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한 결과 궁중의 여인들이나 특히 지체가 높은 부인들일수록 초유를 먹이지 않거나 유모를 따로 두고 모유 대신 주었다고 하며, 그 이유로는 모유 수유로 인한 산모의 기(체력) 소모를 방지하고, 수유로 인해 상실되는 유방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자 하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과거 우리나라의 여인 중에는 부유층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안의 부인층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부인들에게 수유를 맡겼던 전례들은 일부 상류층의 여인들이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은 물론 모유수유하는 행위를 매우 천시하는 경향과 모유수유로 인한 유방의 미적 보전을 위해 모성애를 저버린 이기적 어머니들이 오랜 그 시대에서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사려된다. 한편 우리나라 6.25동란 당시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로 영·유아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식량이 부족한 그 상황에서 원조국으로 부터의 우유 보급은 영·유아에게 좋은 식품으로 등장했고 어쩔 수 없는 보충 및 대체식품이 되면서 인공수유형태가 자연스럽게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 인공수유의 선택 경향은 과거 전쟁시기와 사회적 변화로 인한 상황과는 달리 여성의 사회 진출 및 개인소득의 향상과 대량 공급된 분유의 활발한 판촉활동 등으로 수유형태에 대한 어머니들의 가치관과 신념에 변화를 주어 더욱 모유수유를 기피하는 경향으로 유도되어 모유수유율은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랜 인간 역사와 세계 모든 지역을 걸쳐 태초부터의 수유형태는 모유수유였으나 시대가 발달되고 변화되면서 인공수유는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최상의 방법이고 모유수유가 구식이고 비과학적인 영양법이라고까지 인식하는 극단적인 추세로까지 이르러 현재의 인공수유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2. 모유수유의 실천과 태도

아기의 건강과 생존은 그들이 받는 양육의 질에 달려 있다. 아기가 출생되면 어머니는 돌봄의 행위 가운데 가장 먼저하는 행동 중의 하나가 수유행동이라 할 수 있다. 행동을 심리학적 정의에 따라 제시해 보면, 광의의 의미속에 사고력, 태도, 흥미, 가치관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심리적 과정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태도의 행동 경향성을 가장 강조한 사람이 Allport(1935)로서 최근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의라 하겠으며, 이 정의를 중심으로 태도의 본질 내지 속성을 살펴보면, 첫째, 태도란 정신적 또는 신경적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없으며 다만 그것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서 추리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태도란 반응을 위한 준비성 즉 모든 대상물과 상황에 대한 개인들의 반응을 위한 정신적, 신경적 준비상태로서 어떤 대상물이나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개인들이 반응하도록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진 심리적 상태가 바로 태도라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태도는 자연히 개인들의 행동에 지시적이고 역동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태도란 주어진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들의 반응을 위한 심리적 준비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 실제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며 또한 그 반응의 방향이나 강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넷째, 태도란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생후에 여러가지 경험을 통해서 획득 또는 형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태도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약간 강조점이 다르지만 현대에는 태도의 구성적인 내용에 따라 인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과 행동적 경향의 3개 측면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인지적 측면이란 태도 대상물에 대한 개인들의 관념적 지각에 관련된 것으로서 Katz와 Scotland(1959)에 의하면 태도 대상물 그 자체 및 그것과 현실 세계의 다른 속성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신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태도에는 사상, 신념, 지식들이 한데 뭉쳐 있기 때문에 태도 대상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태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태도 대상에 대한 인지 내용들이 다른 태도 대상들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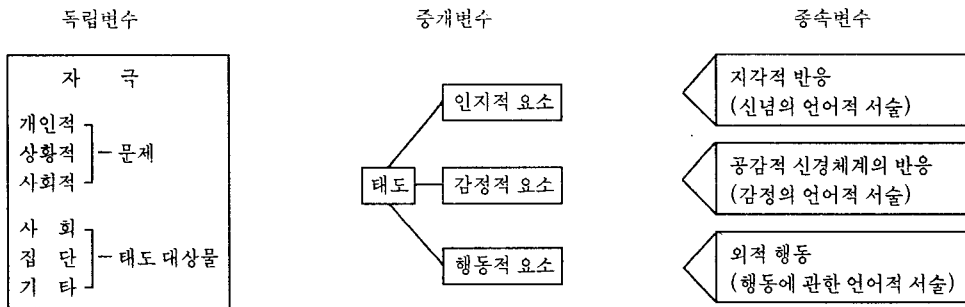
한 인지들과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태대상들에 대한 인지가 없이는 어떤 태도 대상에 대해서도 인지 내용을 가질 수 없으며 따라서 태도가 형성될 수 없으므로 대상에 대한 태도는 복합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유 수유에 관한 부정적인 정보나 긍정적인 정보가 주어져야 태도의 인지 내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감정적 측면은 정서적 측면이라고도 불리워지는데 이는 태도 대상물에 대한 개인들의 좋고 나쁜 느낌이나 감정에 관한 태도의 측면을 말한다(McGuire, 1968). Himmelfarb와 Eagly(1974)에 의하면 그 방향과 강도가 다양하게 변하는 이 감정적 요소는 태도의 핵심적인 측면으로 태도 대상물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감정적 요소가 결여된다면 태도의 인지적 요소로 더이상 태도가 될 수 없으며 그 대신 신념이나 판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감정적 요소를 태도의 순수한 평가적 요소로 간주, 태도의 핵심 요소로 보는 동시에 위의 인지적 요소나 뒤에서 살펴볼 행동적 요소들은 바로 이 감정적 요소들을 둘러싸고 있거나 이 요소로부터 유발되는 부수적 요소라고 Himmelfarb와 Eagly 등의 학자들은 주장한다. 그러므로 태

도의 인지적 측면이 태도 대상과 관련이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단순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누구든 모유에 대한 이로운 정보를 알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긍정적, 부정적 감정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태도 측정은 주로 감정적 측면의 정도차의 측정이라는 것이다.

행동의 경향성이란 겉으로 보이는 태도의 행동적 경향은 태도 대상물에 대한 개인들의 전반적인 행동적 경향을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태도의 이 행동적 요소는 개인들의 행동 그 자체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러한 행동을 하려는 경향으로서의 한 태도적 측면을 지칭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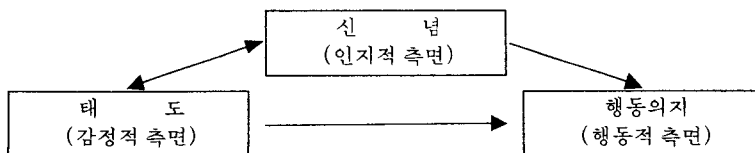
이상에서 태도의 구성 내용(요소)을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Rosenberg와 Hovland(1960)는 이들 구성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태도의 본질을 <그림 1>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태도는 자극이라는 독립 변수로서 이는 3가지 구성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자극과 태도의 이들 각 요소가 합쳐서 유발시키게 되는 결과로서의 반응(종속 변수)들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는 것이다.



<그림 1>

Fishbein과 Ajzen(1925)은 태도의 조직 구조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념(인지적 측면)과 태도(감

정적 측면)는 각각 행동 의지(행동적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관계로 조직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림 2>

홍대식(1983)은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의 태도는 아기에 대한 신념들로 구성된 인지적 요소에 신념들로 연결된 정서적 감정과 특정 양식으로 반응하려는 행동 요소들을 지닌 지속적인 체계이므로 태도의 모든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서 각 요소는 전체 태도뿐 아니라 모든 다른 요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어머니들이 모유수유를 실천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여부에 관해 김신정(1993)은 어머니의 성격이나 문화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Magaret(1988)은 모유수유와 어머니의 성격과의 연구에서 이상적인 모유수유의 성격은 조용하고 성숙하고 본능적이고 독립적이며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을 허용하고 어머니의 역할을 받아들이며 양육과 관련된 예측할 수 없는 본질을 받아들이는 성격으로서 모유수유는 여성적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성은 그녀 자신의 요구를 존중하며 빈번한 모유수유 요구에 적응할 만큼 융통성이 있다고 했다. 김화숙(1991)은 모유수유를 성공적으로 실천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을 어머니가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하며 모유수유를 향한 어머니의 신념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으며, 이혜경(1993)은 어머니가 수유와 영양에 대해 지식이 많고 태도가 긍정적일 때 영아의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으로 모유수유의 실천율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관리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Gulick(1982)은 모유수유의 성공 여부는 모유수유 과정에 대한 지식과 조기의 준비에 의존하며 모유수유에 대해 영아의 어머니가 얼마나 소명감을 갖느냐에 따른다고 했으며, 모유수유를 성공적으로 실천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고 하였던 Robbins(1992)은 소명의 의미를 모유수유의 선택, 그에 따르는 어려움도 전으로 그리고 자조적 자세와 모유수유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신념을 갖는 것을 내포한 산모의 강력한 의지라고 했다. 방매륜(1983)의 연구에서 모유수유 실천에 대한 결정 여부는 대부분 임신모가 임신 전에 결정하며, 타인들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성학적 검사와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측정은 모유수유와 긍정적인 상관관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어머니가 알고 있는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여성인 어머니로서의 돌봄 역할에 대해 적응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모유수유를 실천하는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자들은 모유수유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모유수유를 하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진 어머니의 태도가 중요하다 하였고 어머니의

성격이나 여성의 모성애적 돌봄인 어머니의 역할이 모유수유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때에 주위의 가족들이나 의료인과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교육과 지지는 모유수유를 실천하려는 어머니들의 태도 형성에 중대한 매개 변인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그들이 실시하고 있는 수유형태와 모유수유를 실천하는 어머니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에 있는 5개 종합병원과 10개의 보건소에 소아과 외래와 육아상담실을 방문한 만 1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질문지에 직접 응답 기록하게 하여 불충분하게 응답한 어머니들을 제외한 1696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Brown F.(1960)와 Gulick, E.E.(1982)의 문헌을 고찰한 후 연구자의 경험을 기초로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현재 간호대학에 근무중인 교수 2인과 연구자가 함께 내용을 분석하고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한 후 작성된 질문지로서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 10개와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 10개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어머니의 태도가 수유형태에 대해 호의적 또는 긍정적인지 또는 비호의적 또는 부정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문항에 대해 예, 모르겠다, 아니오로 응답하게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태도의 인지적, 감정적, 행동의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긍정적 문항에 대해 응답한 경우 예 3점, 모르겠다 2점, 아니오를 1점으로, 부정적 문항은 아니오 3점, 모르겠다 2점, 예를 1점으로 배점하여 0-60점까지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 수록 모유수유에 대해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긍정적 문항

에서 예는 호의적 태도를 아니오는 비호의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모르겠다는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태도가 아닌 중립적 태도의 경향을 의미했으며, 부정적 문항은 호의적 태도를 아니오, 비호의적인 태도를 예, 중립적 태도를 모르겠다고 응답하도록 했다. 본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Alpha가 .7549이었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199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1개월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병원과 보건소의 실무자인 간호사에 의해 질문지를 배부토록 하여 대상자들이 질문지에 직접 기록하여 얻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코딩하고 SPSS\PC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백분율로,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의 점수는 Mean과 SD를 측정하였으며 어머니들의 태도 점수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의 관련성은 ANOVA와 MANOVA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대상자들의 수유형태와 인구사회학적 요인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실천하고 있는 수유의 형태는 전 대상자 가운데 52.2%가 인공수유를 하고 있으며 21.7%는 인공수유와 모유를 혼합한 혼합수유를 선택하였고 모유만 수유하는 형태는 26.1%인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73.9%) 이상의 어머니들이 인공수유 형태와 혼합수유 형태로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1967년 생후 2개월-7개월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이현금의 연구에서 모유수유율이 95.1%에 비교하면 너무나 급격히 낮아진 결과이다. 모유수유 실천율에 대한 통계조사는 그 조사대상과 방법이 달라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1967년 이현금의 조사에서 현재까지 나타난 모유수유율의 변동을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1973년 인천에서 4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경숙의 결과에서는 모유수유율이 54.5%였으며 1977년 군산시내 및 옥구군에서 4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진희의 결과는 모유수유율이 59.7%이고 1979년 김성택이 부산과 경남 남해를 중심으로 1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모유수유

율은 46%를 나타내 1970년대 모유수유율은 평균 53%였다. 한편 1981년 김재오가 서울에 있는 유아보건실을 방문한 대상자 350명을 조사한 모유수유율은 44.1%였으며 또한 같은해에 남기현이 42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모유수유율은 69.9%로 보고되었으며 1983년 문중수가 전남지방에서 6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모유수유율은 34%이고 1985년 심재영은 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모유수유율은 30.4%였다. 1988년 이애경이 조사한 모유수유율이 19%로서 1980년대의 모유수유율은 평균 약 38%였다. 1991년 김민선의 연구팀이 서울과 포항에 소재한 6개 종합병원과 1개 보건소에서 소아과 외래와 육아상담실을 방문한 어머니 1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모유수유율이 60%였으며 1992년 이근이 보고한 현재 모유수유율은 30%이고 1993년 5개 병원과 10개 보건소에서 16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본연구의 모유수유율은 26.1%였다. 또한 1993년 서울시 가족보건제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1년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모유수유율은 37.3%이고 1994년 2월 김숙영이 서울시내 보건소의 영·유아실과 3개 종합병원의 소아과 외래에서 조사한 300명 가운데 모유수유율은 53%라고 보고하였다. 1990년도 전반기 현재 모유수유율의 평균은 약 41%로 나타나 1967년에서 1970년대에는 모유수유율이 급격하게(43%) 떨어지고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는 15%정도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다가 1990년 초반 현재는 다시 1980년대(38%)보다는 모유수유율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여러 전문가들의 모유수유 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인 것으로 보여지며 아직도 현재 40%정도의 모유수유율에 관해서 또한 본연구의 모유수유율이 극히 저조한(26.1%) 이유를 다양하고 깊은 어머니들의 행동요소에서 분석되어질 것으로 본다.

수유형태에 따라 어머니와 아기측 요인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본결과 표1에서와 같이 모든 요인에서 각 집단간 수유형태는 인공수유 형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모유수유 그리고 혼합수유의 형태순위를 나타냈으며 어머니측 요인별로 본 인공수유형태가 가장 높은 경우는 어머니 연령가운데 20세 이하군에서(65.6%), 그리고 제왕절개로 분만한 경우(57%),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79%), 학력은 대졸이상의 경우(59%)로 나타나 아주젊은 어머니에서(20세이하) 그리고 정상분만이 아닌 경우와 어머니가 직업이 있으며 고학력의 어머니들에서 인공수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유수유형태는 21세-25세의 어머니 연령군이(30%) 그리고 자연분만만한 경우(29%),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경우

(28%), 학력은 중졸이하의 경우(35%)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21-25세의 어머니들이 다른 연령군에 비해 모유수유율이 높음은 대상자들이 초산부일 경우가 많고 또 가임 적령기인 점을 감안할때 모유수유율 증가면에서 매우 기대되는 결과로 보며 이상

분만이 아닌 경우와 어머니들이 직업이 없는 경우에 모유수유율이 높음은 이상분만과 어머니의 직업은 모유수유의 실천에 저해요인이 됨을 시사한다. 또한 저학력에서 모유수유율이 높은 현상은 무엇이 문제인지 상당히 심층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1>

<표 1> 수유 형태와 어머니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

구 분	요 인	모 유 (%)	인 공 (%)	혼 합 (%)	계 (%)
연령	20 이하	8 (25)	21 (65.6)	3 (9.4)	32 (1.9)
	21-25	75 (30)	117 (47)	59 (23)	251 (5.2)
	26-30	239 (25)	496 (53.5)	195 (21.5)	930 (56.3)
	31-35	93 (24)	20 (53)	87 (23)	381 (23.1)
	36 이상	16 (29)	25 (45)	14 (25)	55 (3.3)
	합 계	431 (26.1)	860 (52.2)	358 (21.7)	1649 (100)
분만 형태	자연분만	303 (29)	522 (50)	226 (21)	1051 (65.3)
	제왕절개	117 (21)	317 (57)	124 (22)	558 (34.5)
	합 계	420 (26.1)	839 (52.1)	350 (21.8)	1609 (100)
직업	유	45 (14)	220 (79)	48 (15)	313 (19.5)
	무	370 (28)	618 (49)	298 (23)	1286 (80.5)
	합 계	415 (26)	838 (52.4)	346 (21.6)	1599 (100)
학력	중졸 이하	43 (35)	49 (40)	32 (25)	124 (7.5)
	고 졸	272 (29)	417 (50)	205 (21)	948 (57.9)
	대졸 이상	113 (20)	331 (59)	121 (21)	565 (34.5)
	합 계	428 (26.1)	851 (52)	358 (21.9)	1637 (100)

<표 2> 수유 형태와 아기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

구 분	요 인	모 유 (%)	인 공 (%)	혼 합 (%)	계 (%)
연령	3M 이하	220 (30)	298 (40)	209 (28)	727 (44)
	3-6M	109 (30)	197 (55)	55 (15)	361 (21.9)
	6-9M	42 (23)	112 (63)	25 (14)	179 (10.6)
	9-12M	16 (16)	63 (65)	19 (19)	98 (5.9)
	12M 이상	44 (15)	190 (68)	50 (17)	284 (17.2)
	합 계	431 (26.1)	860 (52.2)	358 (21.7)	1649 (100)
성별	남 아	202 (24)	446 (53)	199 (23)	847 (53.6)
	여 아	207 (28)	381 (52)	146 (20)	734 (46.4)
	합 계	409 (25.9)	827 (52.3)	345 (21.8)	1581 (100)
출생 순위	첫 째	220 (23)	535 (57)	184 (20)	939 (57.5)
	둘 째	189 (29)	302 (47)	149 (23)	640 (39.1)
	셋째 이상	19 (35)	15 (27)	21 (38)	55 (3.4)
	합 계	428 (26.2)	852 (52.1)	354 (21.7)	1634 (100)
업원	유	40 (18)	152 (67)	36 (15)	228 (14.4)
	무	364 (27)	685 (51)	304 (22)	1353 (85.6)
	합 계	404 (25)	837 (52)	340 (21)	1581 (100)

한편 수유형태에 따라 아기측의 요인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본결과 표 2에서와 같이 모든요인에서 인공수유 형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모유수유 그리고 혼합수유의 형태를 나타냈다. 아기의 연령별로 본 인공수유형태가 가장 높은 경우는 12개월 이상(68%)에서 그리고 성별로는 남자아기가(53%) 아기순위에서는 첫째아기에서(57%) 또 입원 경력이 있는 경우(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형태가 가장 높은 경우는 3개월이하와 6개월이하의 아기연령군에서(30%) 그리고 여아에서(28%), 또 세째아기인 경우(35%)와 입원을 한 경력이 없는 경우가(27%) 높았다. 위 결과에서 12개월 이상 연령의 아기군에서 인공수유율이 특히 높았던 것은 현재 이유시기에 있는 연령군으로 미루어 응답자의 대부분이 현아기의 6개월 이전에 수유형태에 대한 응답이 아니고 우유를 보충식으로 먹고 있는 당시의 수유형태에 대해 응답한 결과인 것으로 보며 성별에 따른 인공수유 형태는 남아가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남녀아기별 빈도는 거의 유사하여 수유형태는 아기 성별에 따라 선별되어 선택되지 않는것으로 본다. 여아에서 모유수유율이 남아보다 높았던 결과는 출생순위중 세째아기에서 모유수유율이 높았던 결과에서 여아가 많았던 것으로 보며 출생순위에서 특히 첫째아기에게 인공수유형태가 높고 세째아기에서 모유수유율이 가장 높았던 결과는 출산회수가 더해감에 따라 어머니가 아기에 대한 수유경험도 증가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게 하므로서 모유수유 형태를 선택하게 한 긍정적인 태도의 결과인 것으로 본다.

2. 모유수유에 대한 대상자들의 태도

모유수유에 대하여 대상자들이 나타낸 태도의 본질을 살펴보면 표 3에서와 같이 대상자 각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신념 및 지식 그리고 관념적 지각에 관련된 내용들 즉 인지적 측면에서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엄마젖을 먹이면 유방을 건강하게 만든다”에 57.8%가 예, 28.5%가 모르겠다, 7.7%가 아니오로 응답하여 대상자들의 반수이상인 모유와 유방건강에 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엄마젖을 먹이면 몸매를 보기싫게 만든다”에 44.4%가 아니오, 27.4%가 예, 22.1%가 모르겠다고 나타내 “예”와 “모르겠다”는 중립적 관념을 가진 49.5%는 모유를 먹이면 몸매를 보기싫게 만든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엄마젖 먹이기는 구시대대의 아기 영양법이다.”

에서 85.6%가 아니오로 응답해 대다수가 모유수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나 10%는 아니오 또는 모른다고 응답해 모유수유는 구시대대의 아기 영양법이므로 앞으로 전혀 모유수유형태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강한 대상자들일 것으로 사려된다. “아기에게는 엄마젖의 성분이 우유보다 좋다”라는 지식은 81.8%가 예라고 하여 대상자중 대다수가 모유수유의 잇점을 알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엄마젖을 먹이면 엄마와 아기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준다”에 대해서도 92.2%가 예라고 응답해 모유수유의 정서적 측면에서의 잇점도 많은수의 어머니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엄마젖을 먹는 아기의 체중증가는 표준에 미달된다” 63%가 아니오라고 응답했으며 그리고 “아기체중을 빨리 늘리려면 인공영양을 하는것이 좋다”에 57.5%만 아니오라고 응답해 과반수 이상의 대상자들이 모유는 아기의 체중증가에 부족함이 없음을 알고 있으나 약 30-40%는 아기의 체중증가에 모유가 부족하다고 또는 중립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위에서 모유성분이 우유보다 좋다고 대다수가(81.8%) 인지한 것과는 상당히 저조한 빈도여서 결국 모유수유 실천에서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으로 본다. 한편 대상자들이 모유수유에 대해 좋고 나쁜 느낌이나 평가를 나타내는 감정적 측면에서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나의 젖은 작지만 양은 충분하다”에 39.7%가 아니오, 33.2%가 예, 17.2%는 모르겠다고 응답해 대상자들의 33%만 어머니 자신의 모유양이 모유수유하기에 충분하다는 태도를 갖고 있으나 56.9%는 충분하지 않다는 감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의 젖은 크기가 작아서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에 52.89%는 아니오 26.8%가 예 13.5%가 모르겠다고 응답해 약 40%가 자신의 모유양이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유방의 크기가 작으면 모유량도 부족하다고 응답해 이결과는 나의 젖은 작지만 양은 충분하다에서와 같이 엄마젖의 크기가 작으면 젖의 양도 부족하다는 위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엄마젖을 먹이면 아기에게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에 57%가 아니오, 31%가 예, 6.7%가 모르겠다고 응답해 과반수 이상이 모유수유시 젖의 양은 아기에게 부족하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37.7% 정도의 대상자들은 부족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엄마젖을 먹이면 아기가 젖을 충분히 먹었는지 몰라 불안하다”에 47%가 아니오, 32%가 예, 14.3%가 모르겠다고 응답했는데 47%는 모유를 먹일때 아기가 엄

마젓을 충분히 먹었는지 또는 충분치 않은지에 대한 아
기상태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6%는 모유수
유후 충분히 젓을 먹은 아기의 반응을 모르고 있는 것으
로 보았다. “아기는 우유병보다 엄마젓을 더 좋아한다.”
에 63.8%가 예, 13.9%가 아니오 16.2%가 모르겠다
로 응답해 대상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아기들은 우유병보다
엄마젓을 더 좋아하고 친근하게 느낀다고 생각하는 감
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엄마젓을 아기에게 먹일때 내
마음은 편안해진다”에 75.5%가 예, 15.7%가 모르겠다,
2.9%가 아니오로 응답했는데 모유수유시 어머니 자신
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나 18.6%는 어
떤 범주의 감정적 태도를 갖는지 또 이 태도가 모유수유
실천에 어떤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규명
은 주요 연구과제일 것으로 본다.

한편 “엄마젓을 먹이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다”에
77.7%가 아니오, 12%가 예, 5.2%가 모르겠다
로 대담해 이결과 또한 모유수유시 고통스럽게(17%) 느끼는
변인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할 과제로 본다. “나의 아기
는 나의 젓을 먹고 만족해 한다”에 41.5%가 예, 28%가

아니오 22.5% 모르겠다
로 응답하였는데 어머니 스스로
가 모유 먹은 자신의 아기가 만족해
한다고 느끼고 있는 (41.5%) 대
상자들에 비하여 약 50.5%가 만
족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 이
결과는 대상자의 반수이상이 모
유수유 실천에 자신이 없거나
현재 모유수유를 실천하지 않
은 어머니들일 것으로 사려된다.
“인공영양을 하면 엄마젓을
먹이는 것보다 여가시간을 더
가질 수 있어서 좋다.”에 50.5%
가 아니오 29.5%가 예, 13.2%
가 모르겠다로 대담해 42.7%가
모유보다는 인공영양이 엄마에
게 여가시간을 더 주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유수유에 대하여 대상자
들이 겉으로 나타낸 태도의 행
동적 요소로서 행동을 하려는 경
향으로서의 태도적 측면을 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나는 아기
에게 엄마젓 먹이기를 좋아한다.”
에 83.5%가 예, 모르겠다 6.5%,
아니오 5.5%로 응답하여 대상
자들 중 대다수가 어머니가 자신
의 아기에게 모유 먹이기를 좋아
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이
고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냈는데
이혜경(1993)이 연구한 결과에서
도 86%가 모유수유하기를 원했
다고 한 결과와 유사했다. 그러
나 대상자중

〈표 3〉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들의 태도

구성요소	태도 문항	예(%)	아니오(%)	모르겠다(%)	무응답(%)
인	엄마젓을 먹이면 유방을 건강하게 만든다	980 (57.8)	131 (7.7)	484 (28.5)	101 (6)
	엄마젓을 먹이면 몸매를 보기싫게 만든다	465 (27.4)	753 (44.4)	374 (22.1)	104 (6.1)
	엄마젓 먹이기는 구시대 아기영양법이다	104 (6.1)	1451 (85.6)	63 (3.7)	78 (4.6)
지	아기에게는 엄마젓의 성분이 우유보다 좋다	1389 (81.8)	132 (8)	84 (5)	91 (5.2)
	엄마젓을 먹이면 엄마와 아기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준다	1563 (92.2)	22 (1.3)	32 (1.9)	79 (4.6)
	엄마젓을 먹는 아기의 체중 증가는 표준에 미달된다	181 (10.7)	1067 (63)	354 (20.8)	94 (5.5)
적	아기체중을 빨리 늘리려면 인공영양을 하는 것이 좋다	334 (19.7)	976 (57.5)	315 (18.6)	71 (4.2)
	나의 젓은 작지만 양은 충분하다	563 (33.2)	674 (39.7)	291 (17.2)	168 (9.9)
	나의 젓은 크기가 작아서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455 (26.8)	895 (52.8)	229 (13.5)	117 (6.9)
감	엄마젓을 먹이면 아기에게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524 (31)	959 (57)	123 (6.7)	90 (5.3)
	엄마젓을 먹이면 아기가 젓을 충분히 먹었는지 몰라서 불안하다	542 (32)	797 (47)	243 (14.3)	114 (6.7)
	아기는 우유병보다 엄마젓을 더 좋아한다	1082 (63.8)	236 (13.9)	274 (16.2)	104 (6.1)
적	엄마젓을 아기에게 먹일때 내마음은 편안해진다	1280 (75.5)	49 (2.9)	267 (15.7)	100 (5.9)
	엄마젓을 먹이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205 (12)	1317 (77.7)	88 (5.2)	86 (5.1)
	나의 아기는 나의 젓을 먹고 만족해 한다	703 (41.5)	475 (28)	382 (22.5)	136 (8)
	인공영양을 하면 엄마젓을 먹이는 것보다 여가시간을 더 가질 수 있어서 좋다	501 (29.5)	855 (50.5)	224 (13.2)	116 (6.8)
행 동 의 경 향	나는 아기에게 엄마젓 먹이기를 좋아한다	1416 (83.5)	90 (95.3)	110 (6.5)	80 (4.7)
	나는 아기에게 엄마젓 먹이기를 잘하고 있다	773 (45.6)	685 (40.4)	77 (7.5)	161 (9.5)
	나는 다음 아기에게도 엄마젓을 먹일 것이다	1075 (63.4)	186 (11)	296 (17.5)	139 (8.1)
	엄마젓을 먹이기 보다는 인공영양이 먹이기에 편리하다	393 (23.3)	1076 (63.4)	124 (7.3)	103 (6)

11.5%의 어머니가 모유수유를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또는 좋지도 싫지도 않은 중립적인 입장의 태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나는 아기에게 엄마젖 먹이기를 잘하고 있다.”에 45.6%가 예, 40.4%가 아니오, 4.5%가 모르겠다라고 대답해 대다수(83.5%)의 어머니가 모유먹이기를 좋아하지만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에는 그 빈도가 훨씬 낮게 나타나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수유형태 중 인공영양을 선택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던 결과에 의한 것으로 사려되며 44.9%가 엄마젖 먹이기를 잘 못한다는 태도를 나타내 잘하고 있지못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나는 다음 아기에게도 엄마젖을 먹일 것이다에는 63.4%가 예, 17.5%가 모르겠다, 11%가 아니오로 응답해 대다수의(83.5%) 어머니들이 모유 먹이기를 좋아하지만 다음 아기에도 또 엄마젖을 먹이겠다는 신념의 빈도는 낮아 모유수유를 좋아하지만 다시 실천하겠다는 행동 경향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에서 많은수의 대상자들이 모유먹이기를 좋아하며(83.6%) 엄마젖의 성분이 우유보다 좋고(81.8%), 모유는 엄마에게 정신적 안정감(92.2%)과 편안함(75.5%)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엄마젖 먹이기를 잘한다(45.6%), 그리고 엄마젖이 아기에게 충분한 양이 되며

(40%) 체중증가에 충분히 도움이 될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게 응답해 모유수유에 대해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많은 수의 어머니가 어떤 면에서 잘못한다고 느끼며 또 젖의 양에 대해 부족하게 느끼는 제요인을 찾는것이 우선 과제일 것으로 사려된다.

3.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대상자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점수

대상자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점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긍정과 부정적 문항의 총 20문항에 대한 점수를 0-60점까지로 하여 본결과 대상자들중 최고는 60점이었고, 최소점수는 27점이었으며 전체 평균은 49.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점수를 5점 간격으로 분류하여 나타난 점수별 순위는 56-60점이 41%, 51-55점이 24%, 46-50점이 21%, 36-40점이 10%, 44점 이하가 4%로서 전대상자의 65%가 50-60점의 비교적 높은 태도 점수를 나타내어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연령별로는 31-35세의 어머니군에서 가장 높은점수(50.27)를 나타냈고, 직업별

〈표 4〉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대상자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점수(N=1696)

요인	구분	평균값	표준편차	For t	P
연령	20 이하	49.47	6.21	1.93	0.10
	21-25	49.30	6.41		
	26-30	49.04	6.36		
	31-35	50.27	5.92		
	35 이상	49.44	7.44		
직업	유	48.97	6.41	1.04	0.29
	무	49.45	6.28		
학력	중졸 이하	49.11	6.51	1.94	0.12
	고졸	49.73	6.28		
	대졸 이상	48.75	6.35		
동거가족	없는 경우	50.45	4.97	0.96	0.42
	친정 및 시부모	47.99	6.52		
	자매 및 기타	50.37	6.20		
분만 형태	자연 분만	49.84	6.18	5.06	0.00
	제왕절개 및 기타	48.65	6.44		
mass com. 통한 정보	유	53.97	6.31	14.23	0.00
	무	49.16	6.73		
수유 형태	모유	54.20	4.66	172.61	0.00
	인공	48.13	6.58		
	혼합	49.07	6.21		

로는 없는 경우에 (48.97%), 교육정도별로는 고졸학력에서 (49.73%), 동거가족 형태중에는 지지자가 없는 (50.45%)군에서 가장 높았으나 이 요인들에 따라 태도 점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그러나 분만형태는 제왕절개로 인한 분만보다 자연분만인 경우가(49.48%) 더 높았으며 대중매체를 통해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들은적이 있는 대상자에서(53.97%) 듣지 못한 대상자 보다 더 높았다. 수유형태 중에는 모유수유를 한 경우가 가장 높게(54.20%) 나타났다. 위 결과에서 분만 형태와 대중매체를 통해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들은 유무에 따라 또한 수유형태에 의해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들의 태도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 결과는 이상 분만보다는 정상과정의 분만이 수유기에 있는 어머니들에게 보다 신체적 정신적 여유와 함께 돌봄에 대한 집중적 관심을 더 가질수 있음에 기인된 결과로 보며 모유수유에 대해 정보를 들은 어머니들이 모유수유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유수유를 한 어머니들이 다른형태(인공, 혼합)의 어머니들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낸은 어머니가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의도 및 신념이 있는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과 정서적, 인지적 태도가 당연히 높을 것으로 사려된다.

4. 아기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대상자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점수

아기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대상자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점수는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아기의 연령별로는 13개월 이상의 아기 대상자에서 가장 높았으나 (49.74%),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의 성별에서는 여아의 대상자들에서 더 높았는데(49.72%)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3.83, P=0.05),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셋째 아기인 경우가 첫째나 둘째 아기인 경우보다 높았으며(50.47%)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27, P<.05).

그러나 아기입원의 경우는 입원하지 않은 경우가 더 높았으나(49.48%) 통계적으로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의 요인중 아기의 성별에서 그리고 출생순위에서 대상자들의 태도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은 대상자들이 아기의 성별중 특별히 여아를 가진 어머니들이 더 긍정적인 태도가 높다는 의미보다는 아직도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의 배경으로 보아 남자아기의 경우에 입원이 다른 모유수유의 실천에 저해요인이 남아에게 우연히 있었을 가능성으로 사려된다. 출생 순위 중 셋째 아기의 대상자에서 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남은 출산회수가 더해감에 따라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의 경험이 축적되어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 및 기술을 습득 하게 되므로서 어머니의 인지적 감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따라서 모유수유를 원하도록 태도의 변화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표 5> 아기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대상자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점수(N=1696)

요인	구분	평균값	표준편차	For t	P
연령	3M 이하	49.09	6.25	0.59	0.66
	3-6M	49.62	6.33		
	6-9M	49.57	6.72		
	9-12M	49.24	6.19		
	13M 이상	49.74	6.27		
성별	남아	49.12	6.38	3.83	0.05
	여아	49.72	6.14		
출생순위	첫째	49.00	6.13	3.27	0.03
	둘째	49.88	6.56		
	셋째 이상	50.47	6.57		
입원	유	48.58	5.92	2.96	0.08
	무	49.48	6.35		

5. 수유형태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모유수유 태도에 미치는 영향

수유형태와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할 때 모유수유에 대한 두 요인의 주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연령과 수유형태의 상호작용 효과는 P값이 .55이어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유수유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정도과 수유형태는 교육정도는 주효과가 없는 것으로(P=.43) 나타났으나 수유형태는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 또한 어머니의 교육정도과 수유형태의 상호작용 효과는 .92로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유수유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가족여부에 대한 주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48) 수유형태에 대한 주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0) 두 요인인 모유수유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유수유의 태도 점수에 대해 아기의 연령의 주효과와(P=.01) 수유형태의 주효과(P=.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기연령과 수유형태에 의한 상호작용의 효

과는 유의성이 없어서(P=.45)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의 출생순위의 주효과는 없었으나(P=.52) 수유형태의 주효과는 있게(P=.00) 나타났으며, 두 변인이 모유수유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P=.00) 나타났다. 아기의 성별에서 주효과는 없었으나(P=.19) 수유형태의 주효과는 있게(P=.00) 나타났으며 두 변인이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모유수유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91). 아기 입원의 주효과는 없었으나(P=.88) 수유형태의 주효과는 있게(P=.00) 나타났으며 두 변인이 모유수유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에서 수유형태는 어머니와 아기의 모든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상호작용에 의한 주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기의 순위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모유수유의 태도 점수는 모유수유 형태에 따라서만 변할 뿐이지 아기순위를 제외한 모든 인구사회학적 요인과의 두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6-1〉 수유형태와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상호작용과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어머니요인	구 분	SS	df	MS	F	P
AS	M E	11239.9	6	1873.3	60.2	0.00
by MAGE	연 령	427.0	4	106.7	3.4	0.00
Feeding	수유형태	10917.7	2	5458.8	175.5	0.00
	2-W	212.7	8	26.5	0.8	0.55
AS	M E	10848.1	5	2169.6	69.0	0.00
by Educ.	교 육	86.5	3	28.8	0.9	0.43
Feeding	수유형태	10615.1	2	5307.5	168.9	0.00
	2-W	60.4	6	10.0	0.3	0.92
AS	M E	10743.8	4	2685.9	86.9	0.00
by Del.	분만형태	121.6	2	60.8	1.9	0.14
Feeding	수유형태	10348.1	2	5174.0	167.5	0.00
	2-W	214.2	3	71.4	2.3	0.07
AS	M E	8471.8	6	1411.9	47.1	0.00
by Faml.	가 족	104.3	4	26.0	0.8	0.48
Feeding	수유형태	8332.4	2	4166.2	139.1	0.00
	2-W	435.5	8	53.9	1.8	0.07

AS : Attitude Score

ME : Main Effect

2-W : 2-Way Interaction

〈표 6-2〉 수유형태와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상호작용과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아기요인	구분	SS	df	MS	F	P
AS	M E	11218.5	6	1869.7	60.1	0.00
by AGE	AGE	405.6	4	101.4	3.2	0.01
Feeding	Feeding	11136.8	2	5568.4	179.0	0.00
	2-W	243.8	8	30.4	0.98	0.45
AS	M E	10790.5	4	2697.6	87.3	0.00
by order	order	40.1	2	20.0	0.6	0.52
Feeding	Feeding	10540.8	2	5270.4	170.6	0.00
	2-W	657.0	4	164.2	5.3	0.00
AS	M E	10164.8	3	3388.2	108.9	0.00
by sex	sex	51.2	1	51.2	1.6	0.19
Feeding	Feeding	10048.5	2	5024.2	161.6	0.00
	2-W	5.5	2	2.7	0.08	0.91
AS	M E	10600.2	3	3533.4	113.8	0.00
by Admis.	Admission	0.6	1	0.6	0.0	0.88
Feeding	Feeding	10485.7	2	5242.8	168.9	0.00
	2-W	86.3	2	43.1	1.3	0.24

V. 결 론

본 연구는 1992년 10월에 대한간호협회의 “모유먹이기” 운동 후 어머니들이 실시하고 있는 수유형태와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연구로서 1993년 6월에 약 1개월 동안 서울 시내에 있는 5개 종합병원과 10개 보건소에 내원한 3세 미만의 아기를 가진 어머니 1696명을 대상으로 대상자들의 수유형태,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점수, 수유형태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모유수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상자들이 실천하고 있는 수유의 형태는 52.2%가 인공수유를 21.7%가 혼합수유를 그리고 26.1%가 모유수유를 실천하고 있었다.

2.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대상자들의 83.5%가 엄마젖 먹이기를 좋아하고 있으며 모유수유는 우유보다 성분이 좋고(81.8%) 정신적 안정감을 준다(92.9%)라고 긍정적인 태도인 행동경향을 높게 나타냈으며 모유수유에 대한 인지적 태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는 엄마젖 먹이기를 잘하고 있다”(45.6%), “모유량은 충분하다”(33.2%), “나의 아기는 나의 젖을 먹고 만족해한다”(41.5%) 등 모유수유에 대한 실천적 행동이나 자신의 모유량에 대해서는 만족지 못하다는 저조한 감정

적 태도를 나타내었다. 한편 모유수유는 유방을 건강하게 만들지만(57.8%) 엄마젖을 먹이면 몸매를 보기 싫게 만든다에 27.4%가 그리고 이에 대해 잘 모르겠다 라고 중립적 입장을 나타낸 22.1% 등 49.5%가 모유수유를 하면 몸매를 보기 싫게 만든다 라고 인지적 태도를 나타냈다. 또한 인공수유에 대해 모유수유보다 여가시간을 더 가질 수 있다에 41.7%가, 인공영양이 먹이기에 편리하다 30.3%, 아기체중을 빨리 늘리기 위해 인공영양을 하는 것이 좋다고(36.3%) 인공수유형태를 선호하는 인지적 태도를 나타냈다.

3.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점수를 총 20문항에 대하여 0-60점까지로 본 결과 평균은 49.86이었고 65%가 50-60점의 비교적 높은 태도점수를 나타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점수는 분만형태와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들은 유무에 따라 그리고 수유형태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기의 성별과 순위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수유형태율이 높은 집단은 21-25세의 어머니 연령에서, 자연분만만 경우, 직업이 없으며, 중졸이하의 학력과 3째 아기인 경우에 높았다.

4. 수유형태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모유수유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모유수유 형태에 따라서만 변할 뿐이지 아기순위를 제외한 모든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두 요인

의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상의 결과에서 대상자들이 직업이 있거나 이상분만인 경우와 대졸 이상의 학력에서 그리고 첫째 아기에서 인공수유형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대상을 중심으로 집중관할 필요가 있으며 모유수유에 대한 인지적 태도가 높음에도 모유수유를 행동에 옮기는 실천율은 (26.1%) 매우 저조한 것에 대한 의문은 앞으로의 중요한 연구과제로서 이에 대해 연구자는 첫째 대상자들이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는 홍보의 내용이나 교육내용이 모유수유를 행동에 옮기는데 문제는 없는지? 둘째, 최근, 병원 분만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해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교육은 적합한지? 셋째, 모유수유를 행동으로 옮기는데 모든 상황에서도 장점과 잇점만 있는 것이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넷째, 현재 모유수유율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위험 수준에 도달한 절박한 실정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제시한 전략들을 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인 실천율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로 본다. 아울러 연구자는 현재 병원 분만율이 85% 이상인 실정에 맞춰서 어머니들이 모유수유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산후시기를 이용하여 현장 실무자에 의해 개인별 산모간호를 통한 설득과 시범교육(유방간호 및 수유법)으로 어머니들이 즉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로 변화시키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산모가 퇴원하기 전에 수유전문가 또는 현장 간호사에 의해 분만 후 즉시 개인적인 접근방식으로 직접적인 교육과 수유기술 시범을 통해 산모가 직접 모유수유 행위를 실천하는 현장을 감독하고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모유수유 실천에 따른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완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현장 시범 교육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전달이 비록 모성 서비스를 통해 우리가 접근하려는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현장에서의 설득은 수신자(어머니)로서의 저항, 즉 정보의 내용을 자기가 갖는 내용에 맞도록 왜곡하거나 여러가지 자아방어기제를 동원하여 합리화하거나 무시해 버리는 경우를 배제할 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간호사가 정보전달자로서 가져야 할 속성은 대상자의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몇가지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다. 즉 정보전달자는 전문성이나 권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야 하며, 진실성이 높을 때에 사회적인 호의감이 있으며 소속집단 요원, 즉 현장 실무자일 경우는 태도 변화를 일으키기 쉬운 장

점이 있다. 또한 전달자가 전하는 정보의 내용 또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우선 어머니가 수신자로서 가지고 있는 태도와 새로 주어진 정보 소통이 얼마나 격차가 있느냐에 따라, 즉 격차가 클때에 태도 변화가 크다는 실험 결과가 있으며 또 정보 내용이 수신자에게 공포를 자아내면 태도 변화가 잘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공포를 자아낸다면 정보전달자에 대해 의심하게 되고 설득내용을 믿지 않게도 된다. 그러므로 직접 설득 방법에 있어서 간호사는 어머니의 특성이 태도 변화에 난이성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즉 자기 자아가 강한 대상자 또는 대상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거나 부정하는 경우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태도를 변화시키기에 어렵다. 그러나 지능이 높은 사람은 설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험 결과 지능과 태도 변화는 그다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가 주어지는 상황조건에 따라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미리 사전 경고를 줌으로써 오래 태도를 고수하게 하여 변화에 대한 저항을 낮출 수 있으며 설득 장면에서 수신자인 어머니의 주의를 분산시킬 때에 또 정보가 수신자가 가지는 다른 욕구를 강화해 주는 장면이면 태도 변화에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위에서 제시한 태도변화의 영향 요인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실무자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설득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험결과가 나와 있다.

제 언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인간의 행동 반응 모델을 참조해 보면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어머니는 대체적으로 인지, 평가의 단계를 거쳐서 태도를 형성하고 태도가 실천(행동)으로 연결이 되어, 긍정적인 태도는 그 행위가 긍정적으로 행해지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 긍정적 태도가 곧바로 실천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미 형성된 긍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행동으로 변화 없이 곧장 옮겨갈 수 있도록 영향하는 구성 요소 및 내용에 대해 그리고 모유수유 행위를 긍정적 실천으로 이끄는 요인과 부정적 실천으로 이끄는 요인이 무엇이며, 긍정적 요인이 형성되어질 수 있는 환경 및 조성 여건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구중모 외(1990). 어머니의 영아양육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간호학회지, 제23호.
- 김경희·이 근 외(1985). 한국 영유아의 수유 실태 조사, 소아과, 제20권 제10호.
- 김민선 외(1991). 모유수유 실천여부와 어머니로서의 자신감 형성 정도와의 관계연구, 이화간호학회지, 제24호, p.33.
- 김분한(1986). 영유아의 수유실태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0(3) : 158-166.
- 김승조. 모유수유의 장애요인 및 대책, 카톨릭의대 강남 성모병원 산부인과 의사 1990년 경희대 모유수유 강연 내용.
- 김신정(1988). 산후 어머니로서의 적응과 모유수유 실천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김신정·이정화(1993). 어머니의 모유수유경험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연구소, 제5권.
- 김종욱(1994). 한국가족의 특성, 대한간호, 1, 2월호, 11-14.
- 김혜숙(1992). 수유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업무지침, 대한간호, 1, 2월호 p.22.
- 김화숙. 모유수유를 시도했던 초산부의 모유수유 지속 요인 분석, 연세대보건대학원 보건간호학과.
- 김효진·박영숙(1993). 영아의 수유 및 보충식에 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제23권, 제3호, 9월 p.377.
- 문영임·한상임(1981). 지역적으로 본 모유영양의 실태, 최신의학, 제24권, 제3호.
- 박옥희. 임신중 유방간호가 산모의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1990년도 문교부지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 박옥희·권인수(1991). 산후경과별 모유수유실태, 모자간호학회지, 제1호, p.45-58.
- 박인순(1982). 산후관리에 대한 산욕부들의 지식 및 태도조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 박인화. 모유 대체식품 판매에 관한 우리나라 현황 및 국제동향,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방매륜(1983). 출산에 관한 한국의 전통문화가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 논문.
- 송규희(1989). 서울시내 일부병원에 내원한 임신부들의 모유수유에 관한 태도 및 지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유안진(1990). 한국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 근(1992). 모유실태와 앞으로의 전망, “모유먹이기 운동 대토론회”, 대한간호협회, p.15-16.
- 이윤구(1992). 밝은 나라, 맑은 사회, 올바른 가정을 위한 여성의 역할 “모유먹이기운동 대토론회”, 대한간호협회, p.7-13.
- 이혜경(1986). 수유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 및 태도,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전인수(1986). 일 중소도시 영아 어머니의 수유행동에 관한 연구, 월간간호, Vol.10, No.3.
- 정귀영, 이 근(1983). 모유실태의 원인, 소아과, 제26권 제6호.
- 정량단(1985). 심리학통론, 태도 및 태도 변화, 법문사, p.376-389.
- 조미영(1992).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과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방안, 대한간호, p.28-34.
- 주진순(1972). 모유수유 실천의 지원 및 근황, 영아영양 연찬회 보고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p.3.
- 최순옥(1987). 모유수유 교육이 그 실천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 하영수(1975). 신생아의 조기수유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5권, 제1호, p.1-13.
- 한경자(1992). 모유수유 실천운동, “모유먹이기운동 대토론회” 대한간호협회, p.25-27.
- 한경자. 한국인 영아초기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행동행태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대식 외(1982). 내원환아 및 육아상담아의 수유실태에 관한조사, 소아과, 제25권, 제4호.
- 황정규(1982). 태도, 교육평가.
- Agaret H Kearney(1988), Identifying Psychological Obstacles to breast feeding success, JOGNN, Mar. - Apr.
- Bobak and Jensen(1979). Breast feeding, “Essentials of Maternity Nursing”, p.657-667.
- Brody, Osilbia(1980). Patterns of Mothering,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cited from Child Assessment project.
- Bruce NC, Khan Z, Olsen ND(1991). Hospital and other influences on the uptake and maintenance of breast feeding : the development of infant feeding policy in a district, Public Health : Sep, 105(5), p.357-368.

- Donalda J. Ellis(1981). Breast feeding : cultivating conductive Attitudes,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72 : 5(Sep. -Oct.), p.319-322.
- Ernazlegel, Cranley M(1966). Breast Feeding, Obstetric Nursing.
- Glick E.(1982). Informational correlates of successful breast feeding, M C N Nov. -Dec., 370-375.
- Graffoy JP(1992). Mother's attitudes to and experience of breast feeding : a primary care study, Br-J-Gen-Pract., 42(355), p.61-64.
- James K. Friel(1989). The effect of a promotion campaign on attitudes of adolescent females Towards breast feeding, Canad. Journal of Public Health, vol.80 May /June, p.195.
- Jolly R.(1990). Breast feeding and health care service, In., J. Gynecol, Obstet., 31 : 105-110,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 Kocturk, J and Zetterstorm, R(1989). The promotion of breast feeding and maternal Attitudes, Acta paediatr., Scand., 78, 817-823.
- Marianne R. Neifert, and Joy M Seacatm CHA (1988). A guide to successful breast feeding, Contemporary Pediatrics, Vol.3, July.
- Parlato M.B(1980). The use of Mass media to promote breast feeding, Am.J.OB-Gy.
- Parlato M.B, Winicoff B, Baereb(1980). The obstetrician's opportunity ; Translating "Breast is best" from theory to practice, Am. J. Obstet-Cynecol, 138, 105-116.
- Riodan. J., Countryman, B. A(1980). Basics of Breast feeding, JOGN, 9(4), 207-213, 9(5), 273-283, 9(6), 357-366.
- Sn. J.(1990).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gy and obstetrics, Gynecol, obstet, 31, 105-110.

- Abstract -

A Study on Type of Feeding and Attitude of mothers to Breast Feeding

Byun, Soo Ja · Han, Kyung Ja** · Lee, Ja Hyung****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mother's attitude to breast feeding and the type of feeding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mother.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1696 mothers who had an infant and who were visiting five Hospitals or ten Public Health Centers in Seoul.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question aire from June, 1 to June, 30, 1993.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types of feeding were artificial feeding 2%), mixed feeding(21.7%) and breast feeding (26.1%).
2. The attitude of mothers to breast feeding was very positive for behavior tendency and cognitive attitude but the emotional attitude was low to moderate.
3. The attitude scores for the mothers were from 27 to 60 and 65% the mothers had scores that were high, 50-60 and mean was 49.86.
4. There was the significance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ype of delivery, obtaining information on breast feeding, type of feeding and baby's birth order) and the attitude score of mothers.
5. The attitude scores for the mothers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ype of feeding was not a 2-way interaction but the type of feeding had a main effects.

* Junior College of Nursing National Medical Center.

**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